

남녀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및 지각된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의 관계*

공 미 정 이 동 형†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수줍음형 위축, 비사교형 위축, 절제형 위축) 및 지각된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학급풍토가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성차를 분석한 결과, 수줍음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 중 관계적 괴롭힘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을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단순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수줍음형 위축과 비사교형 위축, 통제적 및 방임적 학급풍토는 남녀 중학생의 괴롭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자율적 및 친교적 학급풍토는 괴롭힘 피해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절제형 위축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여학생의 절제형 위축은 괴롭힘 피해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남학생의 경우 절제형 위축은 직접적 괴롭힘 및 관계적 괴롭힘 피해와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또래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만 수줍음형 위축 및 절제형 위축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방임적 및 통제적 학급풍토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수줍음형 혹은 절제형 위축을 보이는 여학생이 높은 수준의 방임적 혹은 통제적 학급풍토를 지각할 때 괴롭힘 피해를 보다 빈번히 경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의의,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차례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위축, 수줍음, 비사교성, 학급풍토, 괴롭힘 피해

* 이 논문은 공미정(2016)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동형,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
길 2 / Tel : 051-510-2638, E-mail : leepsy@pusan.ac.kr

학교에서 또래 간에 발생하는 괴롭힘(bullying)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Akiba, 2002). 괴롭힘은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더 강한 학생이 약한 학생을 공격하는 행동으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또래학대의 한 유형이다(Olweus, 1993). 국내에서도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괴롭힘의 원인과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괴롭힘 피해학생들은 자존감 저하, 우울, 외로움, 사회불안 등의 정서적 부적응(최보가, 임지영, 1999; Boivin & Hymel, 1997)뿐만 아니라 낮은 학업성취, 등교거부 등과 같은 학교 부적응(구본용, 1999; Olweus, 1978)을 흔히 경험하며, 이들의 내재화된 분노는 공격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도 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박현선, 김민정, 정익중, 2014; Shari, John, Anne, & Karen, 2002). 더욱이 괴롭힘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성인기까지도 유의하게 지속될 수 있음이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Olweus, 1993).

따라서 괴롭힘 피해에 기여하는 요인이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괴롭힘 피해 학생들이 피해 경험에 노출되기 쉬운 심리사회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특성을 탐색해왔는데, 대체로 괴롭힘 피해학생들은 사회적 자존감이 낮고 우울 및 사회불안 수준이 높으며 또래에 의한 수용도는 낮은 한편 거부 경험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원, 이해경, 2000;

최용민, 이상주, 2003; Egan & Perry, 1998; Perry, Kusel & Perry, 1988; Slec, 1994).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냉담한 태도, 배타성, 회피성, 소심함, 수줍음, 비주장성,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 등을 보이며(신지은, 심은정, 2013),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이해 능력의 부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차윤희, 박경자, 2011).

괴롭힘 피해 학생들이 보이는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의 개념과 연결지어 연구해 왔다(Rubin, Bowker, & Gazelle, 2010; Schwartz, Farver, Chang, & Lee-Shin, 2002). 사회적 위축은 개인이 다양한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스스로를 철회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Rubin & Coplan, 2010)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청소년들은 흔히 새로운 사람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Rubin & Burgess, 20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또래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신유림, 2007; Rubin & Burgess, 2001),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또래관계의 질도 낮고(신유림, 2007),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여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되는 일이 잦아 결국 괴롭힘 피해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13). 이처럼 또래 관련 요인은 심리적 요인이나 부모 관련 요인이 사회적 위축의 기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주로 사회적 위축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축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신을 또래집단으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는 행동양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또래관계에서 배척 혹은 거부를 초래하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Fordham & Stevenson-Hinde, 1999; Gazelle & Rudolph, 2004).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의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소심한 특징도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Olweus, 1993). Boulton과 Smith(1994)의 연구에서 공격적인 아동과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을 비교하였을 때 위축된 아동이 공격적인 아동보다 더 많은 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위축은 아동기 내재화 문제의 하나로 간주되어 단일 구인으로서 연구되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정서적·동기적 하위요소를 반영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Coplan et al., 2013; Coplan & Rubin, 2010). 특히 사회적 위축에 기저하는 사회적 동기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사회적 위축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 연구들(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16; Choo, Xu, & Haron, 2012; Liu et al., 2014; Nelson, 2013; Özdemir, Cheah, & Coplan., 2015)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및 관련 구인을 측정하는 청소년용 척도가 타당화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김원희, 이동형, 김문재, 남윤주, 2016). 이와 같이 사회적 위축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 관점은 Asendorpf(1990)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는 사회적 위축을 사회적 접근동기와 회피 동기의 조합에 따라 수줍음형, 비사교형, 회피형의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sendorpf(1990)에 따르면, 수줍음(shyness)형 사회적 위축 아동·청소년은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사회적인 접촉을 삼가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들은 사회적 접근동기가 높지만 동시에 회피동기도 높아 자주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며, 또래들과 접촉하고 어울리는 것을 피하면서도 다른 또래들이 노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경향이 있다(Coplan, DeBow, Schneider, & Graham, 2009; 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 이에 비해 비사교(unsociability)형 위축은 사회적 접근동기가 낮지만 동시에 회피동기가 높지 않은 경우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또래들과의 직접적 접촉과 상호작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인 회피(avoidance)형은 접근동기가 낮을 뿐만 아니라 회피동기가 높은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또래들을 피하면서 혼자 있을 기회를 찾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회피형 위축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부족하여 정확한 특성과 적응적 시사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유형이 극단적인 사회불안의 결과이거나 우울증의 조기 발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Coplan et al, 2016).

한편, 사회적 위축의 보다 정교한 이해를 위해 Asendorpf(1990)의 접근-회피동기 관점에 따른 세 하위유형 개념이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인도(Bowker & Raja, 2011), 중국(Coplan et al., 2016; Nelson, Hart, Yang, Wu, & Jin, 2012; Liu et al., 2014; Xu, Farver, Zhang & Yu, 2007), 말레이시아(Choo, Xu, & Haron, 2012), 터키(Özdemir, Cheah, & Coplan., 2015), 한국(윤미설, 이동형, 2015; Kim, Rapee, Oh, & Moon, 2008; Xu, Farver, & Shin, 2013) 등 비서구권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사회적 위축의 각

하위유형의 의미와 유형별 적응적 시사점이 문화적 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의 세 유형 외에 추가적인 하위유형이 특정 문화권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Özdemir 등(2015)은 서구 문화권에 비해 사회적인 관계와 조화, 상호의존, 의리 등을 중시하는 비서구 문화권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재개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비서구권에 해당하는 터키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절제(regulated)형’ 위축이 타당한 하위유형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절제형 위축은 자신보다 또래들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또래들로부터 수용을 얻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동기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절제형 위축 아동·청소년은 개인적인 감정, 행동, 욕구 등을 대체로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래들의 제안이나 요구에 잘 순응하고, 자기주장적 행동을 자제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참여하지만 대체로 수동적이고 양보하는 특징을 보인다(Özdemir et al., 2015).

이와 같이 사회적 위축이 다양한 하위유형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임을 감안한다면 세부 하위유형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괴롭힘 피해경험도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서구권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수줍음형 위축 아동·청소년이 내재화 문제나 학교관련 문제뿐 아니라 또래거부나 배제, 괴롭힘 피해와 같은 또래 관계 문제 등 적응상의 문제를 가장 광범위하게 경험함을 보여주었다(Coplan, Arbeau, & Armer, 2008; Gazelle & Ladd, 2003; Gazelle & Spangler, 2007). 또한 이러한 양상은 한국(윤미설, 이동형, 2015)을 포함한 터키(Özdemir et al.,

2015), 인도(Bowker & Raja, 2011), 중국(Coplan et al., 2016) 등 비서구권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plan & Rubin, 2010).

반면,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비사교형 위축은 수줍음형에 비해 아직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하지만, 최근까지 보고된 여러 선행연구들(윤미설, 이동형, 2015; 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04; Coplan & Weeks, 2010; Spangler & Gazelle, 2009; Ladd, Kochenderfer-Ladd, Eggum, Kochel, & McConnell, 2011)은 대체로 비사교형 위축 아동이 수줍음형 위축과 마찬가지로 내재화 문제, 괴롭힘 피해를 포함한 학교적응 문제, 또래관계 문제를 보이지만 수줍음형에 비해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경험하거나 일부 내재화 문제 지표에서는 부적응 문제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비사교형 위축과 부적응적 결과와의 관련성은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에 있는 대학생에게는 더 이상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Nelson, 2013).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비사교형 위축은 ‘비교적 경미한’ 형태의 사회적 위축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비사교형 위축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그럭저럭 충분한’ 또래 상호작용에 참여하거나, 고립과 같은 사회 부적응적 결과가 있더라도 이를 개의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에 따른 부적응적 결과가 경감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13). 그러나 과연 비사교형 위축이 수줍음형 위축에 비해 ‘경미한 형태’의 사회적 위축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가령, Chen

(2010)은 중국과 같이 조화와 개인적 겸양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는 비사교형 위축이 문화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일 수 있으므로 보다 부적응적일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최근에 Coplan 등(2016)은 중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사교성 위축 아동·청소년은 다른 두 유형의 사회적 위축과 ‘비슷한’ 수준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은 비사교형 위축에 따른 적응적 결과가 연령대, 문화적 맥락 등의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Özdemir 등(2015)에 의해 새롭게 제안된 절제형 위축의 경우, 이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부족하여 괴롭힘 피해와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줍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국(Xu, Farver, Yang, & Zeng, 2008)과 한국(Xu, Farver & Shin, 2013) 아동들에게서 ‘절제형 수줍음’이 타당한 구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형태의 수줍음이 또래관계를 포함한 여러 적응지표에 있어서 불안을 주 특징으로 하는 ‘불안형 수줍음’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추론해 볼 때 절제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와의 관련성은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괴롭힘 피해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을 찾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괴롭힘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이나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에도 주목하여야 한다는 점이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오인수, 2010; 이승연, 2014; 이창훈, 송주영, 2009; Espelage & Swearer, 2003;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 더욱이 괴롭힘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가 전체 학생들에게 반영되어서 괴롭힘 발생의 역동과 전반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Bayraker, 2012), 괴롭힘에 대한 또래들의 반응과 평가에 따라 괴롭힘이 강화되거나 억제된다는 연구결과들(Antti, Voeten, Poskiparta, & Salmivalli, 2010)은 괴롭힘을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학급 혹은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들이 많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의 하나가 학급풍토이다. 학급풍토란 학급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에 의해 조성되는 심리사회적 환경으로 (김봉수, 1992; 박은아, 2008), 학급에서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중에 지각하는 소속과 인정, 사랑과 애정, 만족감과 즐거움 등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제반 환경에 대한 개인적 느낌을 지각된 학급풍토라고 정의할 수 있다(Larrivee, 1992). 무엇보다도 학급이야말로 괴롭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이며, 심리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급풍토는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적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보고된 연구들은 대체로 매우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효, 김정아, 2000; 이경아, 이동형, 김원희, 2015; 이지영, 허승희, 2014). 즉 경쟁적 풍토보다는 자율적 학급풍토가 형성될수록 학생들은 괴롭힘 피해학생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방관행동도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이지영, 허승희, 2014), 자신이 속한 학급의 풍토를 자율적이거나 친교적으로 지각할수록 괴롭힘 가해,

피해, 동조, 방관경험을 적게 보고한다(이경아 외, 2015). 반면, 자신의 속한 학급의 풍토를 통제적이거나 방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이러한 경험을 많이 보고할 뿐만 아니라(이경아 외, 2015), 통제적이거나 방임적인 학급풍토에서 괴롭힘에 대한 허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2005). 이와 같이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에 따라 괴롭힘 관여경험이나 태도가 유의하게 달라짐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어떻게 하면 학급풍토의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여 괴롭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즉 보다 변화가 어려운 위험요인(예를 들면, 사회적 위축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상쇄하거나 억제하는데 학급풍토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단일차원의 개념으로서 사회적 위축을 다루어왔을 뿐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고려하여 괴롭힘 피해와의 차별적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연구 중에는 윤미설과 이동형(2015)의 연구가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괴롭힘 피해의 상관을 보고한 바 있으나, 이 연구도 새로운 하위유형으로 제안된 절제형 위축은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회적 위축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함께 괴롭힘이 발생하는 주요 맥락인 학급의 심리사회적 특성, 즉 학급풍토가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예, 이경아 외, 2015; 이현주, 2005)은 사회적 위축이 초래하는 괴롭힘 피해를 학급풍토가 촉진하거나 보호하는 역할, 즉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지만 이를 직접 검증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위축의 대표적인 세 하위 유형(수줍음형, 비사교형, 절제형)과 괴롭힘 피해의 구체적 관계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각한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경험과의 관련성도 알아보며, 더 나아가 다양한 하위유형의 사회적 위축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학급풍토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석에서 성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성차가 나타나는 경우 남녀별로 그 결과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할 것이다. 이는 괴롭힘 피해의 경우 그 하위형태(예, 직접적 대 간접적 혹은 관계적 괴롭힘)에 따라 유의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한 여러 연구결과(조윤오, 2013; 이종원, 윤상연, 김혜진, 허태균, 2014; 이경아 외, 2015; Crick & Grotpeter, 1996)가 있으며, 사회적 위축의 경우 전반적으로 뚜렷한 성차가 없다는 주장(Rubin, Coplan, & Bowker, 2009; Rubin & Barstead, 2014)에서부터 여학생이 수줍음형 위축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연구결과(Crozier, 1995), 남학생의 수줍음형 위축이나 비사교형 위축이 여학생보다 더 부적응적 결과를 보인다는 주장(Doey, Coplan, & Kingbury, 2014; Liu et al., 2014) 등에 이르기까지 성차가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사교성 위축이나 절제형 위축 등의 성차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실증연구 결과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의 대표적인 세 하위유형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

계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학급풍토가 조절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위축 청소년의 괴롭힘 피해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녀 중학생 간에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지각된 학급풍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및 지각된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남녀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풍토는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4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남녀 중학생 502명이었다. 학교행정관리자와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급별로 소속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동의를 구하여 본 연구의 변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464명의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여러 문항에 반복적으로 같은 번호를 선택하는 등 신뢰롭지 않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된 82부를 제외하고, 총 38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남학생이 169명

(44%; 1학년 132명, 3학년 37명), 여학생이 213명(56%; 1학년 119명, 3학년 94명)이었다.

측정도구

괴롭힘 피해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6)가 개발한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임지영(1997)이 수정 및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적 괴롭힘(4문항), 직접적 괴롭힘(5문항) 및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5문항)를 측정하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괴롭힘은 사회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괴롭힘에 노출됨을 의미하고, 직접적 괴롭힘은 의도성이 있는 신체적 혹은 언어적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했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래들이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혹은 도구적 자원을 제공해주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임지영(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관계적 괴롭힘 .80, 직접적 괴롭힘 .7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8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각 .82, .85, .93이었으며, 전체척도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CSPS-R(Child Social Preference Scale-Revised)을 연구자가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CSPS-R은 원래

Coplan 등(2004)이 사회적 접근 및 회피 동기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척도를 Bowker와 Raja(2011)가 청소년용으로 개정한 것을 다시 Özdemir 등(2015)이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비서구권 문화에 맞게 보완·수정한 척도다.

본 연구에서 C-SPS-R의 문항 번역을 위해 연구자 중 1인이 한국어로 1차 번안 후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다른 1인이 번역본을 역번역하여 원문과 대조하면서 문항내용을 다시 수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2차 번역본의 문항들이 중학생의 이해력에 적합한지, 어렵거나 부적절하지는 않은지 검토하기 위해 중학

표 1. 번안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CSPS-R)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			
	1(수줍음형)	2(절제형)	3(비사교형)	공통분
문항 5	.91	.046	-.13	.76
문항 6	.86	.01	-.03	.75
문항 4	.85	-.05	.08	.79
문항 8	.80	-.02	.12	.74
문항 1	.80	.08	-.15	.60
문항 3	.75	-.06	.12	.67
문항 7	.66	.12	.07	.64
문항 2	.64	-.03	.12	.50
문항 13	.03	.73	.02	.55
문항 14	.09	.71	.09	.58
문항 18	-.03	.66	.15	.45
문항 15	-.02	.64	-.10	.46
문항 16	-.12	.58	-.16	.39
문항 19	.16	.56	.13	.46
문항 17	.16	.45	.08	.34
문항 11	-.02	.01	.78	.47
문항 9	-.03	.00	.64	.40
문항 12	.21	-.03	.61	.48
문항 10	.01	.05	.58	.35
고유값	7.28	2.82	1.55	
설명변량	38.30	14.83	8.18	
누적변량	38.30	53.14	61.31	

교 1, 2, 3학년 각각 5명씩 선정하여 총 1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에서 얻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나 표현을 최종 수정·보완한 척도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수줍음형 위축(8문항), 비사교형 위축(4문항), 절제형 위축(7문항)을 측정하는 세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1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는 요인분석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KMO=.9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 $\chi^2=4140.19, p<.001$), 스크리 검정을 통해 요인수를 살펴본 결과 3개의 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해석을 위해 프로맥스(사각회전)를 실시하여 패턴행렬을 검토한 결과, Özdemir 등(2015)의 연구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인 수줍음형 위축 8문항, 비사교형 위축 4문항, 절제형 위축 7문항 등 총 3개 요인의 19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Özdemir 등(2015)의 연구에서 얻어진 원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수줍음형 위축, 비사교형위축, 절제형 위축이 각각 .81, .70,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하위요인별로 각각 .93, .83, .75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9이었다.

지각된 학급풍토

중학생이 지각된 학급풍토는 Halpin과 Croft(1963)가 개발한 조직풍토기술질문지(Organizational Climate Description Questionnaire: OCDQ)를 김창걸(1994)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와 학생의 행동 특성을 결합하여 네 종류의 학급풍토를 측정한다. ‘자율적 풍토’는 교사의 높은 추진성과 학생의 높은 자발성을, ‘통제적 풍토’는 교사의 높은 지시성과 학생의 높은 추종성을, ‘친교적 풍토’는 교사의 높은 사려성과 학생의 높은 친밀성을, 그리고 ‘방임적 풍토’는 교사의 높은 방임성과 학생의 높은 임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각 학급풍토는 교사특성(5문항) 및 학생특성(5문항)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학급풍토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경아 등(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율적 학급풍토 .92, 통제적 학급풍토 .81, 친교적 학급풍토 .85, 방임적 학급풍토 .8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4, .87, .90, .9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함께 성별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언변수로 설정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준거변수인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에서 학급풍토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괴롭힘 피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각 하위유형과 학급풍토 각각의 변인

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과 학급풍토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과 지각된 학급풍토 변인은 평균중심화하여 투입하였다(Aiken & West, 1991).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차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지각된 학급풍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변인들의 성차를 검증한 결과(t 검증),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괴롭힘 피해 중 관계적 괴롭힘 피해 경험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91$, $p<.001$),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줍음 위축이 더 높은 것($t=-4.99$, $p<.001$)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변인들에 있어서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지각된 학급풍토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집단,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의 상관분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 상관의 크기와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있어서 상관분석 결과는 남녀 별로 따로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줍음형 위축과 비사교형 위축

표 2.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지각된 학급풍토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차

구분	남($n=169$)		여($n=213$)		전체($N=382$)		t
	M	SD	M	SD	M	SD	
1. 괴롭힘 피해	1.59	0.49	1.59	0.48	1.59	0.48	0.10
1-1. 관계적 괴롭힘	1.24	0.44	1.45	0.63	1.36	0.56	-3.91***
1-2. 직접적 괴롭힘	1.20	0.41	1.17	0.41	1.18	0.41	0.63
1-3.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2.27	0.98	2.11	0.83	2.22	0.90	1.72
2. 수줍음형 위축	1.47	0.66	1.85	0.81	1.68	0.77	-4.99***
3. 비사교형 위축	1.68	0.75	1.86	0.78	1.78	0.77	-2.24
4. 절제형 위축	2.68	0.82	2.68	0.68	2.68	0.74	0.03
5. 자율적 풍토	3.81	0.80	3.63	0.83	3.71	0.82	2.12
6. 통제적 풍토	2.37	0.77	2.52	0.74	2.46	0.76	-1.96
7. 친교적 풍토	3.46	0.76	3.41	0.71	3.43	0.73	0.76
8. 방임적 풍토	2.10	0.81	2.26	0.79	2.19	0.80	-1.93

* $p<.05$, ** $p<.01$, *** $p<.001$

표 3. 남녀 중학생의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지각된 학급풍토 간의 상관관계(N=382)

구분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			지각된 학급풍토			
	1	1-1	1-2	1-3	2	3	4	5	6	7	8
1. 괴롭힘 피해	-	.66**	.65**	.88**	.52**	.29**	.23**	-.43**	.20*	-.37**	.20**
1-1. 관계적 괴롭힘	.76**	-	.59**	.31**	.44**	.19**	.20**	-.30**	.06	-.25**	.08
1-2. 직접적 괴롭힘	.60**	.38**	-	.27**	.22**	.18*	.12	-.17*	.05	-.20**	.08
1-3.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86**	.44**	.25**	-	.47**	.27**	.19**	-.42**	.23**	-.34**	.22**
2. 수줍음형 위축	.41**	.43**	.35**	.26**	-	.58**	.38**	-.13	.14	-.17*	.08
3. 비사교형 위축	.26**	.34**	.24**	.13	.40**	-	.27**	-.15	.11	-.11	.03
4. 절제형 위축	-.09	.05	.06	-.17*	.43**	.06	-	.30**	.10	.31**	.04
5. 자율적 풍토	-.41**	-.30**	-.15*	-.40**	-.23**	-.22**	-.08	-	-.14	.78**	-.22**
6. 통제적 풍토	.27**	.19**	.16*	.24**	.09	.10	.08	-.52**	-	-.04	.68**
7. 친교적 풍토	-.35**	-.21**	-.14*	-.36**	-.23**	-.22**	-.14*	.81**	-.40**	-	-.15
8. 방임적 풍토	.38**	.32**	.22**	.31**	.19**	.15*	-.01	-.47**	.49**	-.36**	-

* $p < .05$, ** $p < .01$; 대각선 왼쪽 하단은 남($n=169$), 대각선 오른쪽 상단은 여($n=213$)

은 남녀 모두 괴롭힘 피해와 낮거나 중간크기의 정적상관($r=.26 \sim .52$)을 보인 반면, 절제형 위축은 여학생의 경우에만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상관($r=.23$)이 있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피해의 하위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수줍음형 및 비사교형 위축은 남녀 모두 직접적 및 관계적 괴롭힘과 낮거나 중간크기의 유의한 정적상관($r=.18 \sim .44$)을 보였으나, 절제형 위축의 경우에는 성차를 보였다. 여학생의 절제형 위축은 관계적 괴롭힘($r=.20$) 및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r=.19$)와 낮은 수준이지만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반면, 남학생의 절제형 위축은 오히려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와 부적상관($r=-.17$)을 보임에 따라, 괴롭힘 피해에 있어서 절제형 위축의 역할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의 상관을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급의 풍토가 통제적이거나 방임적일수록 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r=.35 \sim .43$), 학급의 풍토가 자율적이거나 친교적일수록 괴롭힘 피해 경험이 적은 것($r=-.20 \sim -.38$)으로 나타났다.

남녀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풍토의 조절 효과

사회적 위축의 각 하위유형(수줍음형 위축, 비사교형 위축, 절제형 위축)이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네 종류의 지각된 학급풍토가 조절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의 각 하위유형과 조절변수인 자율적, 통제적, 친교적, 방임적 학

급풍도 각각을 투입하고 종속변수인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대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성별에 달라지는 양상이 있었으므로, 조절효과 분석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따로 실시되었다.

수줍음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풍토의 조절효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에서 수줍음형 위축과 자율적 및 친교적 학급풍토가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수줍음형 위축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높아지며, 자율적 풍토나 친교적 풍토를 높게 지각할수록 괴롭힘 피해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증가된 설명량(ΔR^2)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자율적 풍토나 친교적 풍토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수줍음형 위축과 통제적 및 방임적 학급풍토가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줍음형 위축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높아지며, 통제적 풍토나 방임적 풍토를 높게 지각할수록 괴롭힘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증가된 설명량(ΔR^2)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여학생 집단에서는 통제적 풍토와의 상호작용항이 괴롭힘 피해의 변량의 3%를 추가로 설명하여 유의하였고, 방임적 풍토와의 상호작용항이 괴롭힘 피해의 변량을

표 4. 남녀 중학생의 수줍음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풍토의 조절효과(N=382)

변 수	남학생(n=169)					여학생(n=213)					
	B	SE B	β	R^2	ΔR^2	B	SE B	β	R^2	ΔR^2	
1단계	수줍음형(A)	0.26	0.05	.36***	.31					.36	
	자율적풍토(B)	-0.23	0.04	-.38***							
2단계	A × B	-0.09	0.07	-.09	.32	.01	-0.04	0.04	-.05	.36	.00
1단계	수줍음형(A)	0.28	0.05	.36***	.18					.32	
	통제적풍토(B)	0.09	0.05	.14*							
2단계	A × B	-0.08	0.09	-.07	.19	.00	0.14	0.05	.16**	.35	.03**
1단계	수줍음형(A)	0.26	0.05	.35***	.26					.33	
	친교적풍토(B)	-0.20	0.04	-.31***							
2단계	A × B	-0.03	0.09	-.02	.26	.00	-0.04	0.05	-.05	.33	.00
1단계	수줍음형(A)	0.29	0.05	.39***	.19					.36	
	방임적풍토(B)	0.01	0.04	.17*							
2단계	A × B	-0.00	0.08	-.00	.19	.00	0.15	0.05	.18**	.39	.03**

* $p < .05$, ** $p < .01$, *** $p < .001$

3%를 추가로 설명하여 유의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 집단과는 달리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의 수줍음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통제적 학급풍토와 방임적 학급풍토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수줍음형 위축과 통제적 학급풍토, 방임적 학급풍토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각각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그림 1 및 그림 2 참조), 수줍음형 위축이 낮은 경우에는 학급풍토를 통제적 혹은 방임적으로 지각하는 정도와 상관없이 괴롭힘 피해에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수줍음형 위축이 높은 경우에는 학급풍토가 통제적이거나 방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괴롭힘 피해가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사교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풍토의 조절효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남학생 및 여학생 집단 모두 비사교형 위축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높아지며, 자율적 혹은 친교적 풍토를 높게 지각할수록 괴롭힘 피해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증가된 설명량(ΔR^2)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자율적 풍토 및 친교적 풍토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남녀 모두 비사교형 위축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높아지며, 통제적 풍토 혹은 방임적 풍토를 높게 지각할수록 괴롭힘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 단계), 비사교형 위축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조절효과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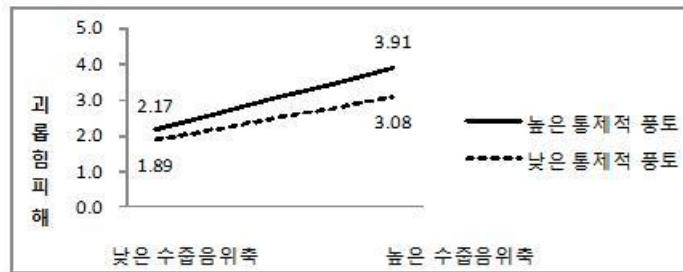


그림 1. 여학생의 수줍음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통제적 학급풍토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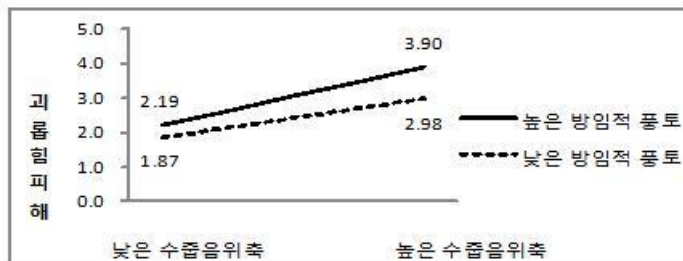


그림 2. 여학생의 수줍음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방임적 학급풍토의 조절효과

표 5. 남녀 중학생의 비사교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풍토의 조절효과(N=382)

변 수	남학생(n=169)					여학생(n=213)					
	B	SE B	β	R ²	ΔR^2	B	SE B	β	R ²	ΔR^2	
1단계	비사교형(A)	0.13	0.05	.20**	.22		0.13	0.04	.21**	.21	
	자율적풍토(B)	-0.24	0.04	-.40***			-0.21	0.04	-.36***		
2단계	A × B	0.01	0.07	.01	.22	.00	0.03	0.05	.04	.21	.00
1단계	비사교형(A)	0.15	0.05	.24**	.09		0.17	0.04	.27***	.14	
	통제적풍토(B)	0.11	0.05	.17*			0.16	0.04	.24***		
2단계	A × B	0.02	0.08	.02	.09	.00	0.02	0.06	.03	.14	.00
1단계	비사교형(A)	0.14	0.05	.22**	.19		0.14	0.04	.23**	.17	
	친교적풍토(B)	-0.22	0.05	-.35***			-0.20	0.04	-.29***		
2단계	A × B	0.05	0.07	.06	.19	.00	0.01	0.06	.01	.17	.00
1단계	비사교형(A)	0.16	0.05	.25**	.10		0.15	0.04	.24***	.20	
	방임적풍토(B)	0.12	0.04	.20**			0.21	0.04	.34***		
2단계	A × B	0.01	0.07	.01	.10	.00	0.02	0.05	.02	.20	.00

*p<.05, **p<.01, ***p<.001

않았다.

절제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풍토의 조절효과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단계에서 여학생은 절제형 위축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의 경우 절제형 위축이 괴롭힘 피해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남학생 및 여학생 집단 모두 자율적 풍토나 친교적 풍토를 높게 지각할수록 괴롭힘 피해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남녀 모두 자율적 풍토나 친교적 풍토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1단계에서 절제형 위축과 통제적 및 방임적

학급풍토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만 절제형 위축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증가된 설명량(ΔR^2)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여학생 집단에서는 통제적 풍토와의 상호작용항이 괴롭힘 피해의 변량의 2%를 추가로 설명하여 유의하였고, 방임적 풍토와의 상호작용항이 괴롭힘 피해의 변량을 3%를 추가로 설명하여 유의하였다. 그러나 남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여학생 집단과는 달리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여학생의 절제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통제적 및 방임적 학급풍토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3 및 그림 4 참조), 여학생의 절제형 위축이 낮은 경

표 6. 남녀 중학생의 절제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풍토의 조절효과(N=382)

변 수	남학생(n=169)					여학생(n=213)					
	B	SE B	β	R ²	ΔR^2	B	SE B	β	R ²	ΔR^2	
1단계	절제형(A)	0.02	0.04	.04	.18	0.14	0.04	.19**	.20		
	자율적풍토(B)	-0.27	0.05	-.43***		-0.23	0.04	-.39***			
2단계	A × B	0.01	0.04	.02	.18	.00	-0.06	0.05	-.07	.21	.01
1단계	절제형(A)	-0.07	0.05	-.12	.05	0.15	0.05	.20**	.11		
	통제적(B)	0.13	0.05	.21**		0.17	0.04	.25***			
2단계	A × B	0.07	0.06	.09	.06	.01	0.13	0.05	.16*	.14	.02*
1단계	절제형(A)	0.01	0.05	.02	.14	0.13	0.05	.18**	.15		
	친교적풍토(B)	-0.24	0.05	-.38***		-0.22	0.04	-.32***			
2단계	A × B	0.06	0.04	.11	.15	.01	-0.08	0.06	-.09	.16	.01
1단계	절제형(A)	-0.06	0.05	-.10	.05	0.16	0.04	.23***	.20		
	방임적풍토(B)	0.12	0.05	.21**		0.23	0.04	.38***			
2단계	A × B	0.05	0.05	.08	.06	.01	0.13	0.05	.18**	.22	.0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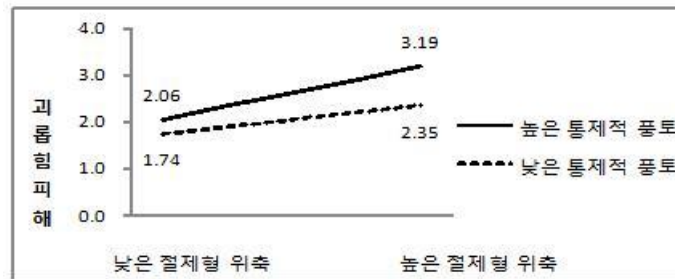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의 절제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통제적 학급풍토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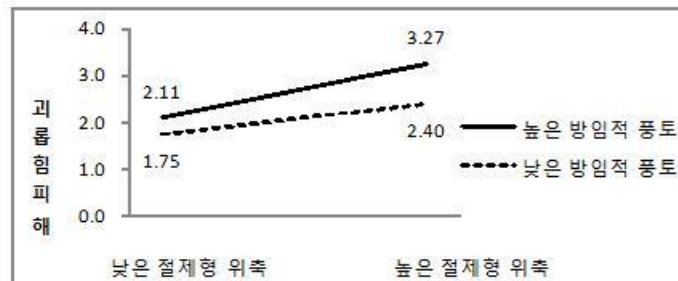


그림 4. 여학생의 절제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방임적 학급풍토의 조절효과

우에는 통제적 혹은 방임적 풍토의 지각 수준과 상관없이 괴롭힘 피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여학생의 절제형 위축이 높은 경우에는 학급풍토가 통제적 혹은 방임적일수록 괴롭힘 피해 수준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인 수줍음형 위축, 비사교형 위축, 절제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풍토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괴롭힘 피해와 사회적 위축에서의 성차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하여 모든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문제 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차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지각된 학급풍토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연구문제 1)를 분석한 결과, 괴롭힘 피해 중 관계적 괴롭힘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괴롭힘 피해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중에서 수줍음형 위축의 경우에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신체적 혹은 언어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높은 반면, 관계적(간접적) 공격성이나 관계적 폭력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하거나 여학생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이경아 외, 2015; 이은주, 2001; 조운오, 2013; Crick & Grotpeter,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관계지향적이며, 또래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Ellis & Zarbatany, 2007)에 관계적 괴롭힘 피해도 더 빈번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줍음형 위축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고한 반면, 비사교형 위축과 절제형 위축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수줍음형 위축을 더 높게 보고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Crozier, 1995; Liu et al., 2014)과 일치한다. 이는 수줍음형 위축이 사회불안과 공유하는 변량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사회불안을 일관되게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줍음형 위축의 정도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Doey et al., 2014). 그러나 Doey 등(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실제로 여학생이 사회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줍음이나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를 여학생이 더 기꺼이 보고하는 자기보고 편향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통제된 상태에서 이러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후속연구나 자기보고식 평가가 아닌 다른 양식의 평가방법(예: 또래지명, 교사평정, 부모평정 등)을 통해 성차의 원인을 확인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점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보다는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의 방향이나 크기가 남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와 3은 이러한 관점에서 성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비사교형 위축이나 절제

형 위축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사교형 위축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Liu et al., 2014)나 비사교형 위축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미미한 크기의 성차를 보고한 국내 연구결과(윤미설, 이동형, 2015)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함께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 정도에 있어서 성차를 논할 때 하위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연구문제 2), 남녀 중학생의 수줍음형 위축 및 비사교형 위축은 괴롭힘 피해와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유의한 정적상관($r=.26\sim.52$)을 보였으나, 절제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수줍음형 위축 및 비사교형 위축과 함께 절제형 위축 또한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남학생의 절제형 위축은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더욱이 괴롭힘 피해의 하위요인을 고려했을 때, 여학생은 절제형 위축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의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r=.19$), 남학생은 절제형 위축이 높을수록 또래로부터의 친사회적 행동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r=-.17$). 상관의 크기가 크지 않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다른 하위유형의 사회적 위축과 마찬가지로 절제형 위축이 괴롭힘 피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학생의 결과는 한국

이나 중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절제형 수줍음’에 대한 선행연구(Xu et al., 2008; Xu, Farver, & Shin et al., 2013)에서 ‘불안형 수줍음’은 대부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지표와 정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절제형 수줍음은 이러한 부적응 지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적상관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와 이들 선행연구의 구인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불안형 수줍음이 본 연구의 수줍음형 위축과, 절제형 수줍음이 본 연구의 절제형 위축과 개념적으로 매우 근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제형 위축이 청소년 초기의 여학생에게는 괴롭힘 피해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남학생에게는 괴롭힘 피해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보호요인이 될 가능성은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 초기에 보다 뚜렷해지는 또래관계 양상의 성차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 초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보다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개방적인 동성 간 또래관계를 추구하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동성의 또래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 보다는 구체적, 물리적 도움과 공유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Rice & Dolgin, 2008). 따라서 절제형 위축 청소년의 전형적인 행동 특성(예를 들면, 갈등을 피하거나 양보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며 또래의 요구에 대해 대체로 순응적, 수용적, 비주장적 태도를 보임)은 다른 하위유형과 마찬가지로 여학생 또래집단의 기대와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괴롭힘 피해(특히 관계적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남학생 또래집단의 경우에는 절제형 위축 남자 청소년의 특징적 행동이 동성 또래집단 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또래에 의한 수용도를 높여 또래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상관의 크기가 크지 않으며, 성별에 따른 절제형 위축의 기능적, 적응적 시사점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국내외 연구를 막론하고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잠정적 해석의 타당성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급풍토는 성별과 관계없이 괴롭힘 피해와 유사한 양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연구문제 2), 구체적으로 친교적 및 자율적 풍토는 괴롭힘 피해와 부적상관(-.35~-.43)을, 통제적 및 방임적 풍토는 정적상관(.20~.38)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급풍토가 괴롭힘 피해와 관련됨을 보여준 국내외 선행연구들(김정호, 김정아, 2000; Ryan & Patrick, 2001), 특히 본 연구와 동일한 네 유형의 학급풍토가 남녀 초등학생들의 괴롭힘 피해나 남자 중학생들의 동조, 방관, 방어 등의 주변인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보여준 최근 연구결과들(이경아 등, 2015; 정상호, 이동형, 2016)을 확장하는 것으로, 학급풍토의 개선이 괴롭힘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학급풍토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연구문제 3), 여학생의 수줍음형 및 절제형 위축과 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에서 통제적 및 방임적 풍토의 조절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수줍음형 위축과 절제형 위축은 학급풍토가 통

제적, 방임적일수록 괴롭힘 피해를 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학급에 적절한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역할을 할 때 학생들의 괴롭힘 피해가 줄어드는 반면 학급이 분위기가 괴롭힘에 대해 허용적일 경우 괴롭힘 피해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김은아, 이승연, 2011; 김정호, 김정아, 2000; Ryan & Patrick, 2001)나 학급의 풍토가 통제적일 경우 학급 급우들 간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며, 서로 적대적 혹은 공격적으로 되어 괴롭힘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서혜선, 2008; 유승경, 1994; 이현주, 2005; 한규옥, 1995; Jarolimek & Foster, 1997)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 하위 유형 중 수줍음형 위축과 절제형 위축 수준이 높은 여학생에게서 방임적, 통제적 학급풍토가 특히 더 괴롭힘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결과(조절효과)는 흥미로운 것으로, 이는 여자 청소년의 높은 관계지향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Berndt, 1982; Leadbeater, Boone, Sangster, & Mathieson, 2006). 즉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관계지향성이 강하므로 관계적 괴롭힘을 보다 흔히 경험하며(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관계적 괴롭힘 피해경험이 더 높음), 특히 사회적으로 위축된 여학생들은 이러한 피해에 보다 빈번히 노출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남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인 학급풍토에 의해 부가되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괴롭힘 피해경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남녀 중학생의 괴롭힘 피해 감소를 위한 개입 및 예방에 몇 가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적 위축은 하위유형과 성별에 따라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므로 사회적 위축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개입할 때에는 이러한 변인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수줍음형 위축이나 비사교형 위축을 보이는 남녀 중학생들과 절제형 위축의 특성을 보이는 여중생들은 괴롭힘 피해에 취약하지만, 절제형 위축을 보이는 남자 중학생들은 괴롭힘 피해의 증가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이러한 특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괴롭힘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거나 괴롭힘 피해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의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사회적으로 위축된 중학생의 성별과 사회적 위축에 기저하는 동기를 고려한다면 보다 적절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녀 중학생 모두 부정적 학급풍토는 괴롭힘 피해를 증가시키고 긍정적 학급풍토는 괴롭힘 피해를 감소시키므로 학급풍토의 개선 노력이 괴롭힘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겠지만, 특히 수줍음형 위축 및 절제형 위축 특성이 높은 여학생들이 괴롭힘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여학생들을 주로 지도하는 교사들은 교사가 지시하며 학생들이 무조건 추종하는 식의 통제적 분위기, 혹은 교사의 적절한 개입 없이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방임적인 학급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친밀하고 우호적인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사회적으로 위축된 여학생들의 괴롭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영남권의 한 광역시(도심)에 소재한 4개 중학교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였다.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 많은 학교들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어 소속 학교장의 허락을 받는 대로 표본을 추출하다 보니 지역분포, 학년분포와 성별 분포가 다소 고르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연속변인으로 측정하여 다른 연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나, 실제적으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은 세 유형의 특성이 한 개인 내에 공존하기 보다는 한 개인이 사회적 위축의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보다 정확하다. 물론 본 연구의 변인 중심적 분석 결과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른 관련변인과의 차별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지만,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대상자중심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속하는 위축 집단을 구분하고, 구분된 집단 별로 괴롭힘 피해와의 관련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을 구분하여 하위유형에 따른 적응적 특성의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윤미설, 이동형, 2015; Coplan et al., 2016; Nelson, 2013)가 있었으나, 아직은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절단점을 설정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등 탐색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집단을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게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하위유형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국내의 실정에서, 최근 서구권 국가들뿐 아니라 동양권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개념을 도입하여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성을 세부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절체형 위축을 기존의 수줍음형 및 비사교형에 추가하여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위축과 괴롭힘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고 정교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괴롭힘 피해가 사회적 위축과 같은 청소년의 개인 특성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또래집단이나 학급의 특성과 같은 맥락적 변인,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일반적 결론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성별과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라 학급풍토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괴롭힘 예방 노력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분용 (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제21회 청소년문제토론회 자료집, 7-16.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봉수 (1982). 학교와 학급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 김원희, 이동형, 김문재, 남윤주 (2016).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27-348.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급 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김정호, 김정아 (2000). 아동간의 또래 괴롭힘과 학급 풍토와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1(1), 53-74.
- 김창걸 (1994). 교육행정학신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박은아 (2008). 서울 지역 통합학급 및 일반학급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김민정, 정익중 (2014).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 발달유형에 따른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양상. 사회복지연구, 45(2), 5-30.
- 서혜선 (2008).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의 지도성 유형 및 학급풍토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차이.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유림 (2007).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한국아동학회, 28(5), 193-207.
- 신지은, 심은정 (2013). 집단따돌림 관여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19-39.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 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 45-63.
- 유승경 (1994). 학급풍토와 소외수준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설, 이동형 (201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기능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2(9), 301-326.
- 이경아, 김원희, 이동형 (2015). 남녀 초등학교의 공감 및 지각된 학급풍토와 괴롭힘 참여역할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28(3), 21-47.
- 이승연 (2014). 중학생의 공감, 사회적 효능감, 지각된 규준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89-109.
- 이은주 (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7-180.
- 이종원, 윤상연, 김혜진, 허태균 (2014). 권위주의 성격과 인기도에 따른 학교괴롭힘의 참여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109-135.
- 이지영, 허승희(2014). 초등학교 학급풍토가 집단따돌림에 대한 방관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6(6), 1296-1305.
- 이창훈, 송주영 (2009). 집단 괴롭힘(bullying)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한국범죄학*, 3(2), 103-143.
- 이현주 (2005). 아동이 지각하는 학급풍토와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 (1997).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상호, 이동형 (2016). 중학생의 또래동조성과 괴롭힘 주변인 역할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2), 27-45.
- 조운오 (2013).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155-179.
- 차윤희, 박경자 (2011).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역할과 사회적 이해. *생애학회지*, 1(1), 47-67.
- 최보가, 임지영 (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최용민, 이상주 (2003).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0(4), 459-485.
- 한규옥 (1995). 학급풍토 지각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Sage.
- Akiba, M. (2002). Student victimization: National and school system effects on school violence in 37 nat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4), 829-853.
- Antti, K. A., Boeten, M., Poskiparta, E., & Salmivalli, C. (2010). Vulnerable children in varying classroom contexts: Bystanders' behaviors moderate the effects of risk factors on victimiz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6(3), 261-282.
- Asendorff, J.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 250-259.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 M. (198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yraker, F. (2012).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North Cyprus and Turkey: Testing a multifactor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6), 1040-1065.
- Berndt, T. J. (1982). Friendship and friends' influence in adolesc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 156-159.
- Boivin, M., & Hymel, S. (1997). Peer expectations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35-145.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5.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201-212.
- Chen, X. (2010). Shyness-inhibi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K. H. Rubin, & R. J. Coplan (Eds.),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pp. 213-235). New York: Guilford.
- Choo, M. S., Xu, Y., & Haron, P. F. (2012). Subtypes of nonsocial pla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Malaysian preschool children. *Social Development, 21*, 294-312.
- Coplan, R. J., Arbeau, K. A., & Armer, M. (2008). Don't fret, be supportive! Maternal characteristics linking child shyness to psycho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359-371.
- Coplan, R. J., DeBow, A., Schneider, B. H., & Graham, A. A. (2009). The social behaviours of inhibited children in and out of preschool.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891-905.
- Coplan, R. J., Liu, J., Ooi, L. L., Chen, X., Li, D., & Ding, X. (2016). A person-oriented analysis of social withdrawal in Chinese children. *Social Development, 25*(4), 794-911.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 244-258.
- Coplan, R. J., Rose-Krasnor, L., Weeks, M., Kingsbury, A., Kingbury, M., & Bullock, A. (2013). Alone is crowd: Social motivations, social withdrawal,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later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 861-875.
- Coplan, R. J., & Rubin, K. H. (2010).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childhood: History, theories, definitions, and assessments. In K. H. Rubin, & R. J. Coplan (Eds.),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pp. 3-2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plan, R. J., & Weeks, M. (2010). Unsociability in middle childhood: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s with socio-emotional functi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56*, 105-130.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Crozier, W. R. (1995). Shyness and self-esteem in middle childhoo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 85-95.
- Doey, L., Coplan, R. J., & Kingsbury, M. (2014). Bashful boys and coy girls: A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 childhood shyness. *Sex Roles*, 70, 255-266.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Ellis, W., & Zarbatany, L. (2007). Explaining friendship formation and friendship stability: The role of children's and friends'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3, 79 - 104.
- Espelage, D. L., & Swearer, S. M. (2003). Research on school bullying and victimization: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School Psychology Review*, 32(3), 365-383.
- Fordham, K., & Stevenson-Hinde, J. (1999). Shyness, friendship quality, and adjustment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757-768.
- Gazelle, H., & Ladd, G. W. (2003).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 257-278.
- Gazelle, H., & Rudolph, K. D. (2004). Moving toward and away from the world: Social approach and avoidance trajectories in anxious solitary youth. *Child Development*, 75, 829 - 849.
- Gazelle, H., & Spangler, T. (2007). Early childhood anxious solitude and subsequent peer relationships: Maternal and cognitive moderato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15-535.
- Halpin, A. W., & Croft, S. B. (1963).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Scho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Jarolimek, J., & Foster, C. D. (1997).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elementary school*. New Jersey: Prentice Hall.
- Kim, J., Rapee, R., Oh, K., & Moon, H. (2008). Retrospective report of social withdrawal during adolescence and current mal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Cross-cultural comparisons between Australian and South Korean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31, 543-563.
- Ladd, G. W., Kochenderfer-Ladd, B., Eggum, N. D., Kochel, K. P., & McConnell, E. M. (2011). Characterizing and comparing the friendships of anxious-solitary and unsociable pre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82, 1434-1453.
- Larivee, B. (1992). *Strategies for effective classroom management: Creating collaborative climate*. Boston: Allyn & Bacon.
- Leadbeater, B., Boone, E., Sangster, N., & Mathieson, L. (2006). Sex differences in the personal costs and benefit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high school. *Aggressive Behavior*, 32, 409-419.
- Liu, J., Coplan, R. J., Chen, X., Li, D., Ding, X., & Zhou, Y. (2014). Unsociability and shyness in Chinese children: Concurrent and predictive relations with indices of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23, 119-136.
- Nelson, L. J. (2013). Going it alone: Comparing

- subtypes of withdrawal on indices of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22, 522-528.
- Nelson, L. J., Hart, C. H., Yang, C., Wu, P., & Jin, S. (2012). An examination of the behavioral correlates of subtypes of nonsocial play among Chinese preschoolers. *Merrill-Palmer Quarterly*, 58, 77-109.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Oxford, England: Hemisphere.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315-341).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Özdemir, S. B., Cheah, C. S. L., & Coplan, R. J. (2015).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multiple forms of social withdrawal in turkey. *Social Development*, 24(1), 142-165.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ice, F. P., & Dolgin, K. G. (2008).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12th edition)*. New York.: Allyn & Bacon.
- Rubin, K. H. & Barstead, M.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A commentary. *Sex roles*, 70(7-8), 274-284.
- Rubin, K. H., Bowker, J. C., & Gazelle, H. (201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In K. H. Rubin & R. Coplan (Eds.),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pp.131-156). Guilford.
- Rubin, K. H., & Burgess, K. B. (2001). Social withdrawal. In M. W. Vasey & M. R. Dadds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407-434).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Coplan, R. J. (2010).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New York: Guilford.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1.1-11.31.
- Ryan, A. M., & Patrick, H. (2001). The classroom soci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adolescents' motivation and engagement during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 437-460.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chwartz, D., Farver, J. M., Chang, L.,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 113-125.
- Shari, M, J., John, D, D., Anne, M, G., & Karen, B. (2002).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nd early starter models of conduc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3). 217-230.
- Slee, P. T. (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 Development*, 25(2), 97-107.
- Spangler, T., & Gazelle, H. (2009). Anxious solitude, unsociability, and peer exclusion in middle childhood: A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Social Development*, 18, 833-856.
- Xu, Y., Farver, J. M., Chang, L., Zhang, Z., & Yu, L. (2007). Moving away or fitting in?: Understanding shyness in Chines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53, 527-556.
- Xu, Y., Farver, J. M., Yang, Y., & Zeng, Q. (2008). Chinese children's conception of shyness: A prototype approach. *Merrill-Palmer Quarterly*, 54, 515 - 544.
- Xu, Y., Farver, J. M., & Shin, Y. (2013). Shynes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South Korean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8, 145-155.
- 원 고 접 수 일 : 2017. 06.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8. 19.
최종게재결정일 : 2017. 08. 24.

Relationship of Social Withdrawal Subtypes and Perceived Class Climates with Peer Victimization among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Mijung Gong

Donghyung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social withdrawal subtypes (i.e., shy, unsociable, and regulated withdrawal) and perceived class climates (PCLs) with peer victimization (PV) and tested if the PCLs moderate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withdrawal subtypes and PV among 382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As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gender, in which middle school girls had higher shy withdrawal and relational PV scores, were found, subsequent analyses were conducted separately for boys and girls. Correlational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shy and unsociable withdrawal and “controlled” and “laissez-faire” PCL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V, whereas “autonomous” and “sociable” PCL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V for both boys and girls. Regulated withdrawal was differently associated with PV by gender; regulated withdrawal significantly increased PV among girls, while it was not associated with direct and relational PV and associated with increased pro-social behaviors by peers among boys. Further, the moderating roles of controlled and laissez-faire PCLs on the relations between shy and unsociable withdrawal and PV were significant only for girls; socially withdrawn middle school girls who were shy or regulated tended to report increased PV experiences, especially as they perceived higher levels of controlled or laissez-faire classmat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our finding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provided.

Key words :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class climate, peer victimization